

시대의 산물, 바우하우스

Products of the times,
Bauhaus

글. 김신
Kim, Shin
디자인 칼럼니스트

올해는 바우하우스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다 보니 이 학교가 만들어진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 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출판, 전시 등의 행사가 준비중이다. 여러 잡지에서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에 2017년은 네덜란드의 신조형주의 운동인 데스틸이 설립 100주년을 맞은 해였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구성주의도 마찬가지다. 데스틸이나 구성주의와 견주어 바우하우스는 왜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더 각광 받을까?

첫째, 바우하우스를 주도한 교수와 학생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또는 일거리의 상실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로써 바우하우스의 정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다. 둘째, 바우하우스를 탄생시킨 독일은 모던 건축과 디자인 운동이 활발했던 1920년대에 데스틸의 네덜란드나 구성주의의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발달된 제조업 국가였다. 바우하우스의 생산물은 가구부터 조명, 도자기, 금속 테이블웨어, 직물, 글꼴, 포스터와 책, 패션, 무대 의상, 건축에 이르기까지 종합 선물 세트다. 반면에 당시 러



사진 1. 아프리카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 1921년

시아는 유럽에서 산업이 가장 덜 발달한 농업 국가였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생산물은 대부분 포스터 류의 그래픽 디자인, 또는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처럼 모형에 머물렀다. 셋째, 결정적으로 데사우에 건설된 바우하우스 빌딩은 이 학교를 모더니즘의 성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을 하나의 분명한 이미지로 떠올리

게 하는 구심점이 있는 셈이다. 반면에 데스틸은 슈뢰더 주택처럼 건축물이 대부분 개인 주택이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임팩트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바우하우스는 이들보다 확실히 앞선 모던 디자인 운동인가? 사실 그것을 따지는 건 커다란 의미가 없다. 여러 모던 운



사진 2. 바우하우스 로고, 칼 페터 뮐, 1919년

동들은 독립적으로 발달했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시작된 데스틸과 구성주의는 바우하우스에 엄청난 자양분을 마련해주었다. 1919년에 바우하우스가 설립되었을 때, 교장인 발터 그로피우스는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예술가와 공예가가 힘을 합쳐

아름다운 건축과 내부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건축과 그 내부를 채울 제품 디자인의 방향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바우하우스의 건축 프로젝트와 제품을 보

면 표현주의 성향이 강했다. 표현주의는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모

더니즘과 어울리지 않는다.

발터 그로피우스의 좀머펠트 주택(1920-22년)과 마르셀 브로이어의 아프리카 의자(1921년) 같은 초기 프로젝트를 보면 그런 경향이 자명해 보인다. 1919년에 디자인된 학교 로고(1919년)가



사진 3. 적청 의자, 게리트 리트벨트, 1918년

더욱 이 학교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하지만 1920년대 초, 데스틸의 설립자인 테오 판 두스부르흐와 게리트 리트벨트 같은 건축사들이 바우하우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데스틸의 신조형주의는 기본적으로 환원주의를 지향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형태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색은 원색과 흰색, 검정 같은 몇 가지 색



사진 4. 각목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 1922년

만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프리카 의자를 디자인했던 브로이어는 리트벨트의 적청 의자를 본 뒤 아프리카 의자와는 형식이 완전히 다른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의자를 디자인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또 한번 도약하는데, 바로 혁신적인 B3 의자를 디자인한다. 이 의자는 처음으로 강철 파이프를 의자의 재료로 썼다.



사진 5. B3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 1925년

데스틸과 구성주의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다. 데스틸은 산세리프체를 주로 사용했고, 검정색의 굵은 띠로 주목도를 높였다. 구성주의는 역동적인 대각선 구도를 애용했다. 바우하우스의 헤르베르트 바이어가 디자인한 칸딘스키 전시회 포스터는 데스틸과 구성주의의 스타일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다. 1922년에 새롭게 디자인한 로고 역시 데스틸의 환원주의를 따르고 있다.



사진 6. 칸딘스키 전시회 포스터, 헤르베르트 바이어, 1926년

데사우에 건설된 바우하우스 빌딩 역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모더니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건축이 아닌 회화 분야로부터 얻은 것이다. 1907년부터 시작된 큐비즘은 서양 회화에서

오랫동안 지켜졌던 원칙인 원근법을 파괴했다. 이로써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그림이 탄생했다. 이런 혁신은 건축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건축 역사가 지그프리트 기디온은 바우하우스 빌딩이 큐비즘을 적용한 건축이라고 평가했다. 좌우대칭의 기존 건물과 달리 자유롭게 구성된 이 건물은 여러 각



사진 7. 바우하우스 새 로고, 오스카 슐레머, 1922년

도에서 보아야 비로소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우하우스는 같은 시대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모더니즘 운동으로부터 양식을 취하고 발전시켰다. 따라서 바우하우스를 유럽의 다른 모더니즘 운동과 견주어 우열을 가리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폐허가 된 도시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저렴하지만 미학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따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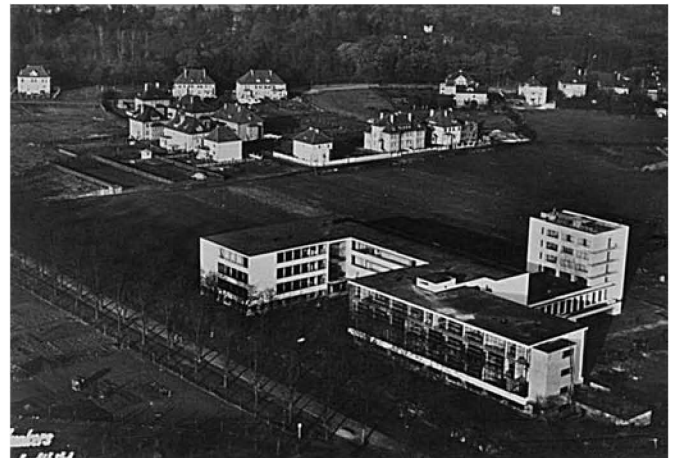


사진 8. 바우하우스 빌딩, 발터 그로피우스, 1926년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월간 <디자인>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 대림미술관 부관장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디자인 칼럼니스트로 여러 미디어에 디자인 글을 기고하고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녀의 탄생>이 있다.

kshin2011@gmail.com